

2025 Us:Code 해커톤

팀 아이디어 기획서 양식(예선)

팀명	내일 아트 (TOMORROW ART)
팀장	강동수
팀원	강태건, 김근용, 이효준
서비스(아이디어) 이름	셀프메이트(Slef-Mate)
서비스(아이디어) 선정 배경	<p>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디지털 연결 속에서도 정작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찾지 못한 채, 외로움과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바쁜 일상, SNS 기반의 피상적 관계는 사람들을 점점 고립시키며, 정서적 불안정과 인지적 피로, 자기 이해 부족, 사고의 단절, 가치관의 혼란은 관계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p> <p>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약화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알아지고, 결국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기존의 친구 매칭 서비스는 관심사나 성격 유형, 위치 등 표면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일시적 만남을 유도했기에, 감정적 공명이나 사고의 흐름, 가치의 일치까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깊이 없는 관계는 정서적 불신과 소진을 낳고, 사람들은 점차 타인뿐 아니라 연결 자체를 피하게 되며, 관계는 선택이 아닌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말은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외부로 터져나오는 통로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말도, 연결도 멈추게 됩니다. “말이 막힌다”는 건 타인과의 소통 단절 이전에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p> <p>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정 표현의 어려움, 사고 흐름의 단절, 자기 인식의 결여, 삶의 방향성 상실 등은 관계의 시작과 지속을 모두 가로막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고, 이는 알고 반복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표현력이나 사고력 저하, 삶의 방향성 부재는 깊이 있는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연결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고착화시킵니다.</p> <p>이 서비스는 사람들을 친구를 만나게 하기 전에, 먼저 ‘연결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고 회복하여 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사용자의 감정 상태, 관심사, 가치관, 생활환경, 활동 패턴, 인지·정서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나의 존재를 공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친구를 연결합니다.</p> <p>자기 탐색은 감정의 이름을 되찾고, 생각의 흐름을 복원하며, 말이 다시 터져나오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감정과 사고는 말의 원천이며, 회복되지 않은 감정과 정리되지 않은 사고로는 어떤 관계도 의미 있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단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기초입니다.</p>

	<p>이를 위해 감정 탐색 콘텐츠, 자아 프로파일링, 가치관 도출, 인지 회복 도구, 철학적 질문 시스템 등 다양한 내면 탐색 기능이 선행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공명도 높은 상대와의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색과 대화, 회복과 성장, 비전과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다층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p> <p>사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정리하며, 감정, 사고, 가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 언어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감정 회복과 자기 표현 능력이 함께 살아나며, 연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기 확장과 회복의 통로로 작용하게 됩니다.</p> <p>이 서비스는 혼자이되 혼자만은 아닌 삶, 말이 흐르고 관계가 의미가 되는 삶, 감정적 안정과 인지적 회복이 어우러진 진정한 연결을 꿈꿉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자신과 타인을 함께 발견해나가는 여정으로서의 관계, 그 가능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 이 서비스의 출발점이며, 도달점입니다.</p>
서비스(아이디어) 소개	<p>이 서비스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랜 외로움과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1인 가구, 바쁜 일상 속 즉흥적 교류가 필요한 사람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는 성숙한 사용자들,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사고 흐름이 단절된 경험이 있는 이들, 삶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기억과 감각을 통해 자신을 되찾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대상입니다</p>
서비스(아이디어) 특징	<p>이 서비스는 관계 이전에 ‘자기 탐색’을 중심에 둡니다. 감정, 가치관, 사고 흐름, 정체성 같은 내면 요소를 다양한 도구를 통해 체험하고 구조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아 프로필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며, 관계 속에서 나와 타인을 함께 회복해가는 여정을 가능하게 합니다.</p> <p>기존의 친구 매칭 서비스들은 대부분 관심사나 MBTI 같은 표면적인 조건에 기반하거나, 연애 및 단기 만남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셀프메이트의 친구 매칭 서비스는 관심사나 위치 정보보다 더 깊은 층위인 정서적 유사성, 사고 흐름의 유사성, 생애사의 공감대, 미래 방향성 등 내면의 흐름과 결을 기준으로 삼아, 단순한 조건 일치가 아닌 공명 기반의 연결을 지향합니다.</p> <p>이를 위해 서비스는 다양한 ‘자기 탐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리테스트, 추구미(美) 테스트, 나를 대변하는 문구 찾기, 철학 질문 카드, 감각 회상 테스트 등은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 기억,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돕고, 이를 통해 유사한 감정 흐름이나 가치 지향을 지닌 사람과의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감정 언어화 도구, 감각 자극 질문, 사고 정리 콘텐츠, 기억 회상 퀘스트, 대화 패턴 성찰 등은 사용자의 감정 인식, 사고 흐름, 언어 표현력, 정체성 통합을 유도하며, 감정 둔감이나 사고 단절, 언어 퇴행 같은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는 감각 기반 질문, 철학적 사고 탐색, 감정-단어 연결 훈련 등을 통해 표현의 흐름을 되살리는 도움을 줍니다.</p> <p>서비스는 단순한 친구 연결을 넘어, 인지 회복과 정서 안정, 언어 유창성 회복, 자존감 향상 등 다층적인 회복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사용자는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들을 맵핑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인식과 자기 신뢰를 회복합니다. 이는 곧 기억과 감정의 연결을 강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점차적으로 말이</p>

	<p>터지고,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타인과의 연결을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p> <p>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정제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를 탐색하며, 비슷한 사유 흐름을 가진 사람과 연결되어 인지 회복과 정서 교감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의 감각과 기억으로 만든 정체성 지도"를 통해 나를 닮은 친구를 찾고, 함께 기억을 확장해가는 플랫폼으로, 내면의 여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감정과 인지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회복형 친구 플랫폼입니다.</p> <p>이러한 흐름을 통해 사용자는 자기 사고 구조를 이해하고 자아 명료도를 높이며, 사고 전개력과 감정 조절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감정보다 생각의 흐름으로 친구를 찾는 경험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한층 깊은 지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며, 함께 생각을 나누는 관계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적인 지적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이와 동시에 인지 피로가 완화되고 정서적 안전감이 확보되며,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회복 동기 부여가 일어납니다.</p> <p>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나는 이런 기억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이해에 도달하고, 감정 표현과 이해력, 감정 회복과 기억 강화, 인지 능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와 감정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며, 이는 삶의 결정 기준을 분명히 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p>
<p>서비스(아이디어) 구현 계획</p>	<p>1. 자아 프로파일링 심리 테스트 및 추구미(美) 테스트 같은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사용자의 현재 상태와 추구하는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시각화합니다. (HTML/CSS, JavaScript, Chart.js) 그 결과는 ‘현재-이상 자아 맵’으로 정리되며, 사용자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소설의 문장, 시의 어귀, 노래 가사, 명언 등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문장들을 북마크할 수 있으며, 이때마다 “왜 이 문장이 당신을 닮았나요?”, “이 문장을 보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이 문장은 무슨 감정과 맞닿아 있나요?” 와 같은 정서 인출형 질문이 함께 제시됩니다. 사용자는 여기에 응답하면서, 감정-기억-사고를 연결 짓는 글쓰기를 통해 장기 기억 인출 능력과 자기 표현력을 회복해갑니다. (JavaScript, OpenAI API, SQLite)</p> <p>사용자는 자신의 인생 주요 사건을 시간 흐름에 따라 그래프 형태로 정리할 수 있고, 사건별 감정 기복도 함께 기록할 수 있어, 자신만의 삶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Chart.js, Vanilla JS, Node.js) 이 모든 데이터는 감정 프로파일, 가치 맵, 기억 흐름 등으로 통합되어 자아 프로필로 자동 구축되며, 이후 친구 매칭에 활용되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Firebase 또는 Supabase) 사용자의 자기 탐색 과정을 다른 유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p> <p>2. 공명 기반 친구 매칭 서비스는 사용자의 감정 곡선, 기억 서술, 가치 판단, 사고 흐름 등 다양한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한 정체성 구조를 가진 사용자들을 추천합니다. (Python, pandas, scikit-learn) 북마크한 문장, 공감한 감정 표현, 유사한 삶의 방향 등을 기반으로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다른 깊이 있는 공통성을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p>

	<p>매칭 시스템은 감정적 반응, 기억 키워드, 사고 연결 방식 등을 간단한 JSON 기반 구조나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유사도를 분석하여 연결망을 생성합니다. (Python, Flask, SQLite)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 간의 공감도를 정량화하고, 정서적 안전성과 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높은 공명도를 지닌 상대를 우선 추천합니다.</p> <p>매칭 이후에도 사용자는 대화 퀘스트, 기억 교환 미션, 감정 리포트 공유 등의 콘텐츠를 통해 상대방과 점진적인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 소통을 넘어 장기적 회복 관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p>
서비스(아이디어) 완성도 목표	<p>1단계: 콘텐츠 기반 마련 심리 테스트 문항, 추구미(美) 테스트, 기억을 불러내는 질문, 감정 어휘를 이용한 북마크 버튼, 명언 모음 등 자아 탐색을 위한 재료들을 수집하고 설계합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작동하진 않지만, 전체 시스템의 뼈대가 이 단계에서 마련됩니다. <u>현재 프로젝트 개발 수준은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00개의 심리 테스트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u></p> <p>2단계: 기본 UI 설계와 자기 탐색 기능 구현 사용자는 심리 테스트와 감정 카드, 문장 북마크 기능을 통해 자신을 탐색할 수 있고, 감정이나 기억에 대한 글쓰기를 경험합니다. 감정 흐름이나 인생 타임라인을 정리해 자아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p> <p>3단계: 친구 매칭 기능 구현 자아 프로파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정 흐름, 가치관, 북마크된 문장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소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4단계: 부가 기능 구현 친구 연결 이후의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대화 퀘스트, 감정 리포트 공유, 기억 기반 대화 유도, 가치 비교 활동 등 회복적 관계 형성을 돕는 콘텐츠가 추가됩니다.</p> <p>5단계: 커뮤니티 기능과 대규모 트래픽 구현 공통된 감정, 관심사, 가치 등을 중심으로 게시판을 형성하고, 감정 공유나 생각 나누기가 가능해집니다. 함께 기억을 기록하거나, 감정 질문에 응답하며 관계를 넓혀가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서비스는 하나의 회복형 커뮤니티로 완성됩니다.</p>
서비스(아이디어) 적용 시나리오	<p>- 내가 마지막으로 웃긴 말을 한 건 두 계절 전이었다. 아무도 기억 못 했고, 나조차도 그날의 농담이 뭐였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때 누군가가 음료를 뿜으며 웃던 얼굴만은 또렷했다. 그 웃음은 오래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말의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입안에 걸린 문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이 지나갔고, 내가 꺼내려던 말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쳤다. 그 순간부터 웃기고 싶다는 마음도 따라 식었다. 점점 반응이 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p> <p>그럴수록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기분 나쁜 거야?” “우리 뭐 실수했어?” 그 물음들 앞에서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유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고,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어떤 날은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듣고 억지로 웃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던 내게 친구가 툭 던졌다. “요즘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p>

	<p>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예민해진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왔을 뿐인데. 오히려 말하고 싶었는데, 자꾸 생각이 멈췄고, 말이 늦어졌고, 그래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된 것뿐인데. 그건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모임에서 한두 번 빠지고, 말없이 자리를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도 생겼다. 오해는 쌓였고, 말하지 못한 마음도 쌓였다.</p> <p>그 즈음, “감정과 말 사이의 다리를 다시 놓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우연히 보게 됐다. 반신반의로 시작했다. 첫 화면에서 ‘지금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감정’을 고르라는 질문이 떴다. 나는 ‘답답함’을 눌렀고, 그 아래 “무엇이 당신을 답답하게 하나요?”라는 문장에 망설이다가 이렇게 썼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처음으로 뭔가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p> <p>서비스는 추구미(美) 테스트를 권했다. 익숙한 감각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톡 터져나오는 웃음’, ‘엉뚱한 말장난’ 같은 항목을 골랐다. 결과는 ‘가볍고 재치 있는 흐름으로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설명을 읽는데, 예전의 농담들이 떠올랐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던 순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터지던 웃음들. 그게 다 내 리듬이었다. 그걸 읽고 나니 이상하게 울컥했고, 한참을 화면을 넘기지 못했다. 심리테스트에서는 반응 지연, 언어 표현 저하, 감정 유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관계의 오해로 남습니다”라는 말이 따라붙었고, 나는 그 문장을 북마크했다.</p> <p>며칠 뒤, 나와 비슷한 감정 흐름을 가진 친구가 연결됐다. 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고, 농담이 엇어질까봐 말할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고 했다. 나와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 우리는 함께 매일의 미션을 진행했고,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북마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내가 쓴 문장 하나에 그가 남긴 코멘트가 있었다. “이건 진짜 웃겼어요.”</p> <p>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웃기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걸 깨달았다. 말이 돌아오는 중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가끔은 내가 먼저 농담을 꺼내기도 했고, 친구가 웃는 걸 보고 나도 웃었다. 예전처럼 반응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내 말에 다시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다.</p> <p>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노력하게 됐다. 하루에 하나씩 문장을 완성해보는 미션, 감정에서 출발해 기억을 꺼내보는 퀘스트, 나를 닮은 문장을 모아 두는 북마크 정리 같은 일들이 이상하리만치 도움이 됐다. 처음엔 겨우 한두 줄 적던 감정 일지가 어느 순간 문단이 되었고, 말이 막히던 구간마다 내 속도를 맞춰주는 질문들이 다시 생각의 흐름을 잡아줬다.</p> <p>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 과정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 말이 느릴 때 기다렸고, 내가 말을 망쳐도 웃었다. 우리는 감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웃음이 어디에서 터질 지를 알게됐다. 지금 나는 예전보다 말을 더 천천히 하지만, 그 말이 다시 사람들 사이를 건너고 있었다. -</p>
서비스(아이디어) 제한 및 장애 요소	<p>이 서비스는 감정, 기억, 가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익명으로 유지하거나 비공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옵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AI가 가치관이나 태도, 사고를 오해하거나 단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용자는 불편감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연성을</p>

	<p>확보하는 UX설계가 필요하며, 해석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보정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AI의 결과는 참고용 정보일 뿐이며, 서비스가 심리적 회복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의료적·심리치료적 개입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p>
서비스(아이디어) 기대효과	<p>이 서비스는 감정, 사고, 기억, 가치의 탐색을 통해 잃어버린 내면의 감각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감정 표현력, 사고 흐름, 자기 인식이 회복되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이는 관계와 일 모두에서 능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친구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며,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의 동기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되며, 감정적 공감과 가치의 공명이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연대와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동시에, 감정 조절력, 사고 명료성, 자기표현력은 의사소통, 협업, 문제 해결, 자기 주도성 등 직업 핵심 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개인의 내면 회복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갖춘 직업적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 서비스는 회복된 자아가 삶을 다시 주도하고, 관계 속에서 확장 되며, 사회 속에서 기여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열정이 되살아난 개인은 타인과의 연결에서도, 일과 성취에서도 더 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적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p>
발표영상	